

메주고리에

Medjugorje

창간호

January, 2001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늘나라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들 가까이 와 있는 오늘날, 나는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느님을 첫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오늘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가 이 지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강인함을 갖추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는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너희 각자에게 내려준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며, 너희 형제인 슬라브코가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너희를 위하여 중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구나.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

슬라브코 신부님은 18년 동안 발현자들의 영적지도 신부님이셨고 성모님의 메시지와 묵상을 전세계에 전하시는 특별한 일을 맡아 오셨던 분이십니다 - 9페이지 참고 -. 돌아가신 슬라브코 신부님의 후계자가 정해질 때까지 묵상은 없겠으며 지난 묵상을 대신 실도록 하겠습니다.

=====

슬라브코 신부님 해설
2000년 10월 25일의 메시지에 관한 묵상

오늘 나는 나의 모성적인 마음을 너희에게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이러한 말을 자녀에게 할 때 그 뜻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이해받음으로써 도움이 되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머니의 소박한 사랑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모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나의 의향을 위해 기도 하라고 청한다.

지난 19년 4개월동안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지향들을 알려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구하도록 하시면서 말입니다.

- 이하의 내용은 본지 8면에서 계속됩니다. -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김한기 시몬
L. I. 그레이트 넥 성당 주임신부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성 빈첸시오회 예비수녀인 카타린 라부레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후 성모님은 오늘날 까지 전세계 방방 곡곡에 나타나시어 당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1858년 루르드에서의 발현과 1917년의 파티마에서의 발현 등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그 밖의 것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성모 신심을 북돋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메주고리에 에서의 성모 발현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주고리에의 성모 발현이 사실이나 아니냐 또는 발현 목격자들이 진짜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 보다는 중요한 것은 성모님이 오늘의 이 시대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발현 여부와 목격자들의 진위 여부는 교회 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메주고리에의 성모 발현 목격자들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지난 1981년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발현하셔서 거의 300번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강조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며 특히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라는 것이다. 둘째, 단식을 통해서 유혹과 시련을 이기라는 것이며 셋째, 성서를 매일 읽으라는 것이다. 특히 성모님께서 성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이는 물질문명과 오락문화, 각종 스포츠의 노예가 되고있는 오늘날의 현대인을 겨냥하는 성모님의 개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네번째로 고해성사를 자주 보라고 하신다.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인 것이다. 특히 서구문명의 홍수속에서 쾌락과 물욕에 젖어 살며 죄에 무감각하고 악의 온갖 형태에 노출되어 살고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성모님의 간절한 바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다 하겠다. 다섯번째로 성체성사를 성모님은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교 신비의 핵심인 이 성체성사는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고 아버지 성부께 바쳐드리는 제사로서 가장 크고 완전한 기도인 미사성제 안에서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미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가장 큰 영적 원천이 된다. 이 미사 안에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성모님은 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주일미사는 물론이요 가능하다면 평일미사도 열심히 참여하라고 권고하신다.

성모님의 이런 메주고리에에서의 메시지는 하나요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정신과 일치한다.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루가 1.38- 라고 하시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믿음의 어머니이시다. 그녀는 이 믿음의 어머니이시기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총을 받으셔서 “여인중에 가장 복된 여인” - 루가 1.42- 이 되신 것이다. 즉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어머니, 성모님의 중재야말로 그 어떤 이의 중재보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백성을 극진히 생각하는 자상한 왕과 왕비가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과 왕비를 존경하고 따랐다. 어

느 날 시골에 사는 한 농부가 왕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가장 좋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만을 골라 한 자루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등에 메고 며칠을 걸어 왕이 사는 궁궐을 찾아갔다. 왕을 만나보려고 왕궁으로 들어가려는데 그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행색을 보고 경비병들이 못들어가게 막았다. 마침 산책을 하던 왕비가 그 광경을 보고 경비병들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왕비는 가혹한 마음이 들어 자기가 직접 왕에게 드리겠다고 하고 경비병에게 사과자루를 안으로 들여놓게 하였다. 그런데 먹음직스럽던 사과들은 며칠동안 자루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러나 왕비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여 좋은 부분만 골라 왕에게 올렸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

하늘에 불러 올림을 받으시고 천상모후의 관을 쓰신 성모님께서는 바로 이 왕비와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를 항상 당신 아드님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자 오늘 우리 새대를 향해 당신의 메시지를 적박한 땅 메주고리에에서 주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회개하며 자신의 회개를 바탕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모님의 메시지와 그 가르침을 담은 이 작은 유인물이 우리 모두의 성모 신심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성모님께로 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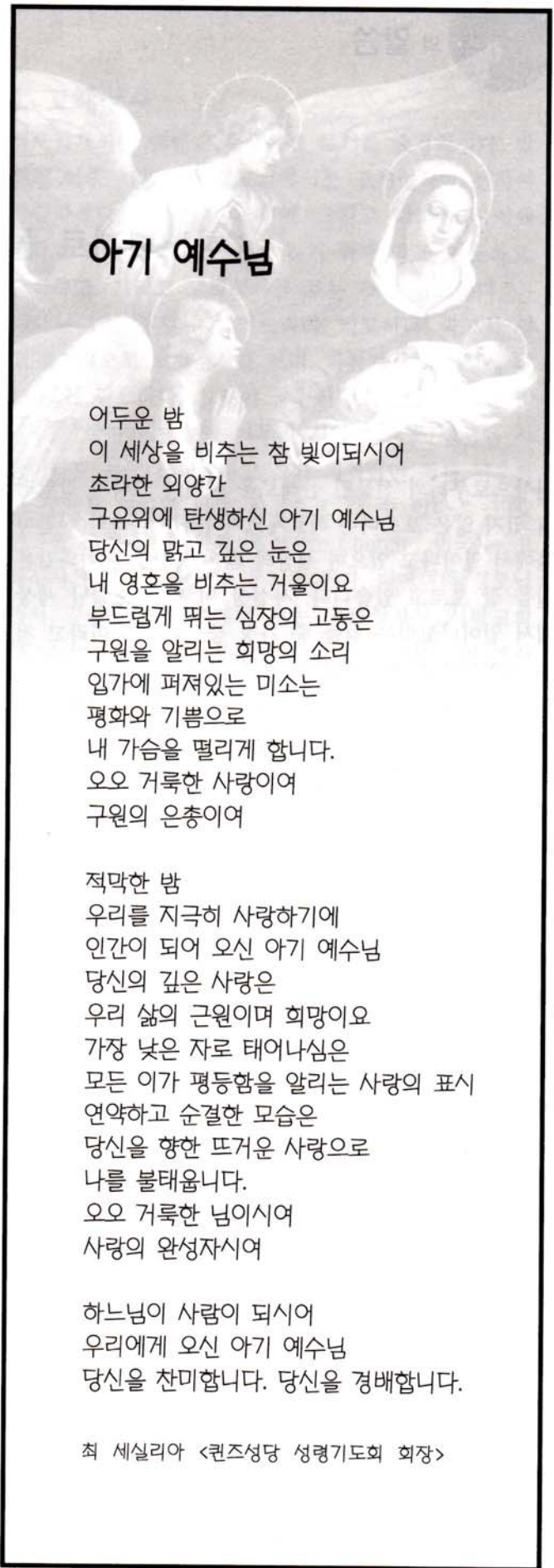
영적 지매님들의 신앙 저임담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신 후 지내시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중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시도록 초대합니다.

<원고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아기 예수님

어두운 밤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시어
초라한 외양간
구유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당신의 맑고 깊은 눈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요
부드럽게 뛰는 심장의 고동은
구원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
입가에 퍼져있는 미소는
평화와 기쁨으로
내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오오 거룩한 사랑이여
구원의 은총이여

적막한 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인간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
당신의 깊은 사랑은
우리 삶의 근원이며 희망이요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심은
모든 이가 평등함을 알리는 사랑의 표시
연약하고 순결한 모습은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불태웁니다.
오오 거룩한 분이시여
사랑의 완성자시여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최 세실리아 <퀸즈성당 성령기도회 회장>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웨인 와이블
메주고리에 저자

천상으로부터의 선물인 은혜로운 사건이 그다지 잘알려져 있지 않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라는 나라의 산간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와같은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의 개인적인 평화와 더불어 이 지상의 평화를 이루는 오직 참된 길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은총의 선물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곳에로의 힘든 여정을 통하여 천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은 어른들이 된 여섯명의 젊은이들에게 성모님께서 지난 19년 동안 발현을 통하여 자신을 들어내 보이시는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마을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순례자들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지난 발현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로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이 말씀 많은 세상을 위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것없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갖고 오십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쇄신이며 하느님께로 돌아오라는 시대의 긴박한 요구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 자신이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총의 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1987년 10월 즉 발현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난 해에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그당시 저는 개신교의 루터란 교파의 신자였으며 신문기자가였습니다.

그당시의 저는 이 사건을 믿지 않았으며 단지 그 사건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흥미본위의 관심에서 최근에 일어난 발현에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중

에 이 일을 믿게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으며 저의 인생에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이롭게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저의 마음을 통하여 제게 분명히 그리고 직접 말씀을 하셨으며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분의 아들이며 당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기를 요청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제게 저의 일생동안 메주고리에의 일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기를 요구하셨으며 이를 저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하고 놀랐으나 “예”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저의 모든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당시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나 성모님 발현에 관하여 네 권의 책을 썼으며 그 중에 세 권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주고리에” 지를 통하여 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예수님과과의 개인적 관계의 평가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매일의 기도와 단식과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메주고리에” 지를 읽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자신들을 위하여 메주고리에의 방문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중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웨인 와이블씨는 성모님의 무염시태 축일에 영세받으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난 1991년 12월 8일 뉴올리언스 성령대회때 영세받음으로서 가족이 모두 가톨릭에 입교하였다>

The greatest gift of grace from heaven is taking place in an obscure village in the mountains of Bosnia Hercegovina, and much of the world does not know about it. In fact, I personally think it is the most important event occurring in the world today. It is the one and only true pathway to global peace as well as individual peace for every living soul.

Thousands of Koreans have discovered this gift of grace, and have made the arduous journey there to partake of it.

They have joined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come to the little village of Medjugorje, where it is reported that for the past nineteen years, the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Jesus Christ, has been appearing by apparition to six young people, who are now adults. She has appeared daily, an unprecedented event in the recorded history of Marian apparitions. The Blessed Virgin comes with a renewed message of hope for a troubled world, a message meant for everyone regardless of faith or no faith. It is a renewal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given in a time of urgent need for return to God.

I am an example of that gift, and of her love for all of her children. I first heard of Medjugorje in October 1987, four years after it had commenced. At the time, I was Lutheran Protestant and a journalist by profession. I was only luke warm in my faith until I heard about this event. Ironically, I did not believe it, but out of curiosity and a desire to write a story about it, I investigated it by watching a recently made videotape of an actual apparition as it took place. As I watched, my heart changed, I believed and then the great miracle in my life occurred. As I watched, fascinated, the Blessed Virgin literally spoke directly to me, to my heart, telling me very clearly that I was her son and asking me to do her Son's will. She went

on to ask me to make the spreading of the Medjugorje event my life mission if I freely chose to do so. I was so shocked and stunned, but I said yes, Since that moment I have traveled throughout the world to spread the messages, including an extended tour of South Korea. I am also not a Catholic by faith, as is most of my family. I have written four books on the apparitions, three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I pra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Medjugorje" will assist many Koreans to evaluate their own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and to place Him in the first place in daily life. The Blessed Virgin asks each of us to do this by daily prayer, fasting and penance. And if the reader of this article "Medjugorje" feels so moved, possibly they will be able to go Medjugorje to see for themselves.

May the peace, love and grace of Jesus, through the intercess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be with each of you.

성모님의 메시지

2000년 12월 25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대희년의 해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예" 라고 응답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축복과 함께 나의 축복을 너희 모두에게 주노라. 기쁨 안에서 너희들도 내가 오늘 간직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위하여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태어날 수 있도록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구세주 이시며 거룩한 삶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너희에게로 모시고 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천 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일



김철석 찰스
메주고리에 추수판 번역자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를 버리고 용감하게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남홍익 그레고리오와 남미자 미카엘라 부부도 그들 중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길잡이가 되어주는 ‘메주고리에’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산다는 것은 천 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씨앗 하나를 심는 일과 같은 일이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다는 것과 또 얼마 남지 않는 이 은총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메주고리에’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보내시어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메주고리에 발현하시어 거의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들이 기도와 단식을 함으로써 하느님과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시며 중재 역할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성모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매일 목격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발현하시는 이 은총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메주고리에 발현은 지구상에서는 마지막이 된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발현이 끝나면 이 세상에는 종말이 아니고 정화의 과정이 오게 될 것이며 오직 믿고 행동으로 따르는 이들만이 살아 남아서 영광 속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인 와이블 저서, 메주고리에 : 추수 297-298페이지).

성모님께서 그레고리오와 미카엘라 부부를 통하여 한국어 독자들에게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시는 큰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메주고리에’를 읽고 믿으며 또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남은 이 은총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 함으로써 지상에서 살아있는 이 시간부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요한 11.25-26 -

어머니가 현존해 계시는 그 곳



남홍익 그레고리오
편집인 (L.I.그레이트넥 본당)

찬미 예수, 마리아
먼저 '메주고리에' 창간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어느 곳이라는 목적도 없이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신 성모님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면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순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9일기도를 바치고 그 기도가 끝나던 날, 평화신문에 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를 보는 순간 알수없는 강하게 이끌리는 힘을 느끼며 꼭 가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초대였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는 채 꼭 메주고리를 가게 해달라고 9일기도와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99년 4월에 첫번째의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게 되었을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곳, 어머니가 현존해 계시는 그 곳 메주고리에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곳은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 이었으며 기도의 힘을 가르쳐 주는 기도의 학교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새롭게 변화 시켜주는 사랑이 가득한 피정의 마을 이었습니다. 3시간이나 걸리는 저녁미사는 미사의 아름다움과 천주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으며 신부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고달픈 삶을 위로받은 순례객들의 맑고 깨끗하게 정화된 얼굴들은 바로 천국의 한 부분을 이 세상에서 보는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일생을 두고 동락한 아내 미카엘라를 보내게 되었고 미카엘라 역시 성모님으로부터 내적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뒤로 메주고리에 저희 부부의 마음과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에 저희 부부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 몇번을 더 가게 되었으며 갈때마다 받는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 달라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한다는 일심동체의 마음을 갖게되어 **평화의 모후센터 U.S.A.**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만들게까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뜻이 있으시며, 계란으로 바위를 쪼개어 그 속에 들어있는 값진 보화를 꺼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이 작은 한알의 씨앗이지만 굳은 마음들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치진 영혼들 그리고 주님을 목말라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뿌려지어 썩을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그 싹을 키워주실 것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어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완벽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하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한가지 예로 메주고리에 첫번째 발현인 6월 24일이 예수님의 길을 닦으려고 오신 세례자 요한의 축일인것을 봐도 성모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주고리를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의 환경이 큰 변화가 생기고 좋아진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에 비록 똑같은 환경 일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나빠진 환경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하느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큰 축복이심을 깨닫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허락해 주심이 기적이기에 주시는 시간 시간마다 그리고 만나는 이웃마다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의탁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보잘것 없는 미약한 도구일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센터 U.S.A.**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창간호는 20페이지로 창간되지만 2번째 부터는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8페이지 정도로 하여 메주고리에의 매달 메시지와 신부님들의 좋은 말씀과 평신도의 체험으로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같이 만들고 도와주실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성모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를 부른다.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을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의 작은 자녀들아 지금은 운송의 때이다. 그러기에 나는 또다시 너희들을 부른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어서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변형시키시며 변화시키시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 하나를 위해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르며 모든것을 의탁하고 살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나의 작은 자녀들아 성령께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진리의 길로 이끄시도록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 1998년 5월 25일 메시지 -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한기 시몬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에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의, 우리 가족의, 우리 본당의, 교회의, 또한 온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요. 성모님의 의향은 또한 모든 이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단식하고 기도하라고 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매달 2일 미리아나와 함께 기도하실때 모든 믿지않는 이들, 즉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들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지향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축복을 받는 이들이니 만큼 모든 다른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한 다른이들과 그리고 자연과 하느님과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좋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들은 진정 평화롭게 살게됩니다. 성모님은 9월 메시지에서 성모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이시며, 믿고 충실하신 마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신 마음으로 그 안에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의 의지가 담긴 이 말씀이 다시 우리들을 격려하여 성모님을 돕기위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주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는 너희가 필요하며 너희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교회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사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며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기도를 쇠신하고 싶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느님을 만남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사용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변화되면 성모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기도를 쇠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은 가정의 기도를 쇠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아주 느리게 이런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한 사람이 기도로 쇠신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중국에는 모든 가족이 기도로 쇠신될것입니다. 기도모임을 만든 모든이들은 성모님께서 이 메시지에서 원하신 것을 벌써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만들어진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한 본당이, 그 지역사회가, 온 교회가 쇠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만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이들이 기도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쇠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기도를 하게되고 많은 기도모임들이 생겨났으며 그로써 본당에서 기도회와 피정들을 하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 순례 후 본당 안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모님께서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식하라고 너희에게 청한다.

이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내 아들 예수님께 새로운 시간 즉 새봄날을 위해 바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 -새봄날- 이라는 말에 대해 상당히 주의해서 이해 해야합니다. 흔히 새로운 시간이 뉴에이지와 같은 뜻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것이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간은 오로지 우리의 기도와 단식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며 기도와 단식을 도외시 하면서 뉴에이지에관한 말만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보통 말해지는 비밀집단 속에서 기다리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것이 아닙니다. 뉴에이지의 이론에 따르면 별들의 어떤 성좌에 의해서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새로운 시간은 영혼들의 회두, 곧 그들 자신을 하느님께 열어드림으로서 곧 그 마음에 하느님이 들어가시어 맨 첫자리를 차지하시면 벌써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같이 이 모든 것은 바깥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무

가면 모두에게 사과하고 그들과 다시는 다툼이나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가족들과 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녀의 가정에서는 새로운 시간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간에 대한 결심을 한다면 그 시간은 벌써 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것과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극적 인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 여기에서 성모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은 먼저 많이 기도하며 단식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입니다. 단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가지만 여기서 반복하고자 합니다. 단식은 신약이나 구약 모두의 성서적 말씀같이 성서적인 실천이며 이것은 모든 시기의 교회의 역사에서 가르치고 실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식에 대해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40년 동안 단식을 실천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누가 단식을 시작하면 그는 많은 반감과 많은 오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기도와 단식을 청하셨으며 중심인 평화의 메시지와 연결시켜 기도와 단식은 자연 재해와 전쟁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식을 하셨으며 그것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복음의 삶이라는 그의 회칙에서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에 대해 말씀하시며 죽음의 문화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며 그것은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으나 삶의 문화는 더 강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인 기도와 단식이 있다고 단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악령을 알아낼 수 있고 단식을 안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식은 전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아버지하며 또한 생각과 영혼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단식을 새롭게 결심할 때 이러한 새로운 시간을 위해 예수님께 바쳐지는 성모님께 대한 선물로 만듭시다. 그런데 성모님만이 새로운 시간, 그 뜻의 확실함을 아십니다.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엿보
다 우리
의 내부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문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선함을 위해서 모든 가족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위해 결심하면 그때 벌써 새로운 시간은 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예수님의 강생과 부활로써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많은 마음들 안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예를 들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한 순례자가 말하기를 메주고리에 온 은총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치유기도 시간에 그녀는 가족들의 모든 다툼이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비난했었는데 이제는 그녀도 또한 가족들의 다툼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

대희년에 많은 마음들이 내게 열렸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번 대희년에 하느님께로 열린 모든 마음들을 위해 감사하고 찬미드려야 합니다. 이 대희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과 성체안에서의 만남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교황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생활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단식하고, 고백성사를 보고 미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체조배를 하게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대희년의 목적은 모든 마음들이 새롭게되는 것이며 대희년을 위한 모든 준비들이 이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참으로 기쁩니다. 만일 우리가 지나간 3년을 돌아본다면 성령의 해, 성자의 해, 성모의 해 그리고 올해는 성체의 해 임을 기억할 것이며, 교황님께서 우리가 대희년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과 물론 많은 마음들이 열린것이 오직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산에서 새롭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면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여기에서는 성모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미사 전날 저녁마다 성령께 기도하라 하신 것과 우리들이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모임들과 기도하는 개인들이 성령께 꾸준히 이 변화가 교회안에서 계속되도록 많은 열매들이 나오며 그리고 회두할 수 있는 선물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심과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성모님의 발현과 특별한 현존의 정말 큰 은총을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작은 아이들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가 너희 기쁨이 될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과의 만남 이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기쁨을 느끼듯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모두 신념을 가지고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 하세요, 이것이 성모님의 뜻이며 바램입니다.”라고 말하고 성모님의 바램은 우리의 필요이며 우리는 기도로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모님의 바램이 평화이므로 우리는 모든 전쟁과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하여 진정한 평화 안에서 살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올 아버지 하느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심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은총을 주신 성모님과 함께 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성모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청합니다. 우리안에 기도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모임들과 온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기도와 단식의 은총을 주시어 성모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위해 예수님께 봉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와 단식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느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의 지역사회가,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방해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선과 자비와 정의의 당신 나라가 오도록 우리들을 거짓과 폭력과 죽음인 사탄의 나라와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아버지, 이 대희년에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우리가 새로운 천년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써 이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어 이세상에 사랑과 평화의 증인이 되게하시며, 교황님과 모든 주교님들과 사제들과 모든 사회와 영세받은 모든이들, 그리스도교의 모든 종파들을 축복하시어 우리들이 성령의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정신을 주시어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알아보고 그것들에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성모님과 함께 청하오니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어 우리가 평화의 사절이 되고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메주고리에 2000년 10월 28일 슬라브코 신부 -

메우고리에의 영적 지도자 슬라브코 신부의 선종

우리에게 매달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한 해설의 말씀을 주시던 Slavko Barbaric 신부님께서 지난 11월 24일 오후 3시 50분(현지시간)에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해마다 이 시기에 본당의 일상적인 예절로서 70명의 신자들과 함께 Mountain Krizevac(십자가산)으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밝은 해가 나오고 그동안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그들은 멀리 산아래 성 제임스 성당 근처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일행은 하산을 하기 시작하였고 커다란 십자가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있는 예수님의 “부활” 즉 제15처의 장소에서 슬라브코 신부님께서서는 멈추신 후 “성모님 저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후 모두를 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조용히 바위 위에 걸터앉으신 후 살며시 땅위로 누우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 숨을 몰아 내쉬시며 평화로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특기할만한 일들을 통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부님께서서는 마치 당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계셨던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매주 금요일의 십자가산 기도에서는 하산길에 통상적으로 멈춰 서서 기도를 드리셨던 일이 없었으며, 둘째로 동정 마리아께 죽음에 있어서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며, 셋째로 가장 특기할 사항으로서 교회 밖에서는 강복을 주신 일이 별로 없셨던 신부님께서 통상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강복을 주신 점 들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 금요일 날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장례미사를 치르신 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일을 연상케 합니다.

매일 매일 크로에시아어로 집전되는 저녁미사 전의 목주 기도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미사 후에 계속하여 함께 드리는 영광의 신비의 목주기도를 인도하셨고, 성시간을 통하여 성체에 대한 완벽한 흠숭과 예수님께 대한

열절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던 슬라브코 신부님께서서는 비단 천주교인만이 아닌 동방정교회, 개신교 신자들과 심지어 이슬람교도들 및 유대교인들까지 포함한 수 천만 명의 순례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7개국어를 유창히 구사하시며 메우고리에 마을의 구석 구석까지 울려 퍼지던 슬라브코 신부님의 다양한 언어로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히 들리는듯 합니다.

뎡큐 지저스(영어), 예수님 감사합니다(한국어), 당케 지저스(독일어), 그라지에 게사(이태리어), 메리시 지저스(프랑스어), 하바라 이수스(크로에시아어).

추수감사절날 지상의 삶을 마감하시고 그리스도 왕 축일에 땅에 묻히신 그리고 성모님의 월간 메시지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새로이 태어나신 슬라브코 신부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메우고리에의 성 제임스 성당 전경



메주고리에 에서의 성모님 발현의 간략한 역사

지금까지 19년 이상 메주고리에(Citluk, Bosnia Govina)의 확실한 6명의 선견자들은 이곳에서 사랑이 넘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Gos-Pa)께서 1981년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맹세하며 굳게 증언하고 있다.

첫째 날

이날 저녁 대략 6시경에, 포드브로드(Podbrod)라고 알려져 있는 Crnica 언덕에서 아이들은 (선견자, Visionary - 이반카 이반코빅, 미리아나 드라비체빅, 비카 이반코빅, 이반 드라기체빅, 이반 이반코빅, 밀카 파블로빅) 팔에 어린 아이를 안고있는 믿을 수 없을만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나 가까이 오라는 것을 몸짓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즉시로 그분이 성모님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놀라고 두려웠던 아이들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둘째 날

1981년 6월 25일, 아이들은 성모님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던 똑같은 장소에서 한번 더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불현듯 갑자기 빛이 번쩍이었다. 아이들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성모님을 보았다. 이때는 아기는 없었다. 성모님께서 기쁘게 웃고 계셨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셨다. 성모님께서 손으로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가리키셨다. 스스로 버티고 있던 아이들은 성모님께 다가갔다. 그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기도하였다. 성모님께서 그들이 성모송을 바칠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기도가 끝난 후 성모님께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는 마리아 파블로빅



서 아이들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먼저 이반카가 두 달 전에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에 관해 성모님께 여쭙어 보았다. 그리고 미리아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어떤 표정을 주실것을 성모님께 요청하였다. 마지막에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의 천사들아!”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을 떠나셨다. 그전에 아이들이 다음날도 성모님을 볼 수 있는가를 여쭙어 보았을 때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선견자들에 따르면 이 우연한 만남의 모든 일은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날은 첫째날 함께있던 2명(이반카 이반코빅, 밀카 파블로빅)이 빠졌었다. 그들 대신 마리아 파블로빅과 야곱 콜로가 있었다. 이 여섯명의 아이들은 이날 이후로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나타나신다고 한다. 발현 첫째날 있었던 밀카 파블로빅과 이반 이반코빅은 성모님을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발현장소에 돌아가 보았으나 다시 성모님을 볼 수 없었다.

셋째 날

1981년 6월 26일, 기대로 가득 찬 아이들은 6시쯤 다시 만났는데 그 시간은 지난번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시간이었다. 그들은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 같은 장소를 향하여 가고있었다. 그들의 기쁨은 존재할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하여 두려운 걱정과 쉬였으나 그들은 매우 행복하였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끄는 어떤 내적인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빛이 세 번 번쩍었다. 이것은 아이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이 오셨음을 가리키는 표시였다. 이 셋째날 성모님께서서는 그 전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발현하셨다. 즉시 성모님께서서는 사라지셨으나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나타나셨다. 성모님은 기쁘고 밝은 모습이었으며 잔잔히 미소짓고 계셨다. 그리고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이 압도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들의 집에서 출발할 때 어떤 할머니는 그들에게 그것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성수를 가지고 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이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비스카는 성수를 집어들어 “만일 당신이 복되신 어머니라면 머물러 있고, 아니라면 우리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며 성모님이 보이는 방향으로 뿌렸다. 이때 성모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들과 함께 남아 계셨다. 그런 다음 미리아나가 이름을 여쭙었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같은 날 포드브로드 아래에서 성모님께서서는 한번 더 발현하셨다. 그러나 이때는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성모님 뒤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다. 성모님께서 다음 말을 하시면서 반복하셨다. “평화가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는 이반과 아금 출로(왼쪽)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넘쳐야만 한다.” 이 일이 있었던 지역은 발현장소까지 약 반정도 되는 곳이었다.

넷째 날

1981년 6월 27일,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다. 그때에 아이들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하였고 성모님께서서는 대답해주셨다. 사제들에 대하여, 성모님께서서는 이 메시지를 주셨다. “사제들이 확고히 믿는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돌볼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마약에 취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야곱과 미리아나는 다시 한번 어떤 표시를 요청하였다. 성모님께서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라고 대답하셨다. 헤어지기 전 다시 오실 것인가를 여쭙었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의 천사들아, 평화와 함께 가거라” 라는 말씀과 함께 헤어지는 인사를 하시려고 한 번 더 나타나셨다.

다섯째 날

1981년 6월 28일, 이른 아침 일찍부터 각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오가 되자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날 본당 신부님이신 요조 조브코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그 전날에 보고 들었던 것을 질문하셨다.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성모님은 다시 발현하셨다. 아이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 드렸고 그 후에 그들은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비스카가 “성모님 저희와 신부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라고 여쭙자 성모님께서서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굳게 믿어야만 한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제들에 관하여, 성모님께서서는 그들이 굳게 믿고 다른 이들도 같이 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이날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번 나타나셨다. 여러번 발현 중 아이들이 왜 성모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당에 발현하시지 않으시는가를 여쭙자 성모님께서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대답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질문과 호기심으로 아이들을 짓누르는 바람에 힘들고 몹시 어려운 날이었으나 아이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느꼈다.

여섯째 날

1981년 6월 29일, 아이들은 의학적인 검사를 받았고 “건강하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표의사의 성명에

의하면 “아이들은 미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을 여기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럴(미쳤을) 수는 있지만....” 라고 하였다. 이날 발현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여느 때와 같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이때 성모님께서 “사람들은 굳건히 믿고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기를 간곡히 타이르셨다. 이날 아이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관찰하던 한 여의사는 성모님을 만져보기를 열망하였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성모님의 어깨가 있는 곳으로 가져갔고, 그녀는 따끔한 감각을 느꼈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의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여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날 다니엘 셋카(Setka)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 여자아이의 부모는 그녀를 메우고리예에 데리고 와서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였다. 성모님께서 그의 부모가 기도하고, 단식하며 강하게 믿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아이는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일곱째 날

1981년 6월 30일, 정부에서 보낸 두 명의 여자가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산책하기 위해 자동차로 좀 더 멀리 가자고 제안하였다. 실지로 그들의 의도는 아이들을 그 지역에서 멀리 데리고 가서 평상시의 발현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있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평상시의 발현 시간에 포드브로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름이 차 밖으로 나오기를 요청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도하였고, 성모님께서서는 이때 1 Km 이상이나 떨어져있던 포드브로드 방향에서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서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일곱 번의 주의 기도를 바치셨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속임수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 일 이후부터 경찰은 아이들과 순례자들이 발현장소인 포드브로드에 계속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 후 곧 아이들과 군중들조차도 거기에 가는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그들의 집이나 별판 등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에게 계속 발현하셨다. 아이들은 이미 확신을 얻었고 숨김없이 성모님과 얘기하였으며 성모님의 조언을 간절히 구하며 훈계와 메시지를 마음깊이 받아들였다. 메우고리예의 사건은

이런식으로 1982년 1월 15일 까지 계속되었고 그동안 본당 신부님은 성당에서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묵주기도에 참석하고 영성체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이들도 묵주기도를 알렸다. 때때로 성모님께서 그 시간에 성당에서 그들에게 발현하셨다. 한번은 본당 신부님도 직접 묵주기도를 드릴 때 성모님을 보았다. 그는 즉시 묵주기도를 멈추고 스스로 “오! 너무도 아름다우신 당신은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 를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성당 사람들이 어떤 비범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후에 그는 성모님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의심하였을 뿐만아니라 발현 소문조차도 공공연히 반대하던 그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에도 발현에 대한 그의 지지를 주장하였다. 1982년 1월 15일 이후로 아이들은 본당에서 인접한 장소에서 성모님을 보았다. 본당 신부님은 최근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과 때때로 목격자들에게 위험도 있었기에 이것을 조정하였다. 사전에 아이들이 이것은 성모님의 바램에 따른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그러나 교구 주교님의 중지 때문에 1985년 4월 이후로 아이들은 발현 장소로써 성당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은 교구 회관의 방으로 갔다. 발현 시작부터 오늘까지 줄곧 아이들이 성모님을 뵈지 못한 날은 오직 5일 뿐이었다. 성모님께서서는 같은 장소 뿐만아니라 같은 그룹과 같은 한 사람에게만 항상 나타나지는 않으셨다. 게다가 발현도 항상 특별히 지정되어진 시간에 지속되지도 않았다. 때때로 발현은 2분, 어떤 때는 한시간 지속되기도 하였다. 성모님께서서는 아이들의 뜻에 따라 발현하시지도 않으셨다. 어떤 때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뜻밖에 예고도 없이 성모님께서서는 조금 지난 시간까지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어떤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성모님께서 약속시간을 정하시지 않으신 때는 언제 발현하실지, 또는 발현하지 않으실지도 아무도 몰랐다. 성모님께서서는 앞서 말한 선견자들에게만 항상 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연령, 신장, 인종, 교육, 삶의 발자국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현하셨다. 이 모든 것은 발현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발현은 시간 뿐만아니라 장소, 바람(원의), 순례자들의 그룹 또는 선견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발현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메주고리에의 중요장소 소개



십자가 산(크리자밧, Krizevac Mountain)

크리자밧 산(십자가산)의 십자가는 메주고리에의 조망에서 가장 의미가 깊으며 뛰어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이 땅 위의 당신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시로써 왜 이 산과 이 지역을 택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된다. 계곡 남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보이는 성 제임스 성당을 내려다 보며 이 십자가는 성모님께서 세상에 주신 강력한 메시지인 참회와 보속을 힘주어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난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십자가)이 건설되어진 얘기를 통해서이다. 15톤의 콘크리트로 된 이 십자가는 1933년 이 지역 사람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멈춘 것에 대한 감사와 구속(예수님의 구원)의 19세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그들의 참회의 정신과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認知)는 이 십자가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졌던 모든 재료를 그들의 손으로 1770 피트 높이의 산으로 운반했다는 단순한 사실로써 알 수 있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소중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이름을 시포박에서 크리자밧으로 바꾸었다. (Kriz는 크로이티어로 ‘십자가’라는 뜻이다.) 해마다 그곳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현양축일(9월 14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관습이 되었고 성모님 발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매주 금요일 사람들은 산에 올라 본당 신부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확실히

히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마을은 발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믿음과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순례객들은 맨발로 이곳을 오르면서 보속과 회개를 하며 성모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발현산 - Apparition Hill

포드브로드(발현산)는 항상 방문객들로 붐빈다. 작은 수풀과 큰 가시덤불로 무성한 바위가 많은 경사면(언덕)은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의 첫 발현 장소이다. 비자코비치 마을에서부터 발현이 있었던 장소까지 좁다란 길이나 있는데 이 길은 지난 19년간 이 언덕을 오른 수 많은 순례객들에 의해 지금은 조금 넓혀져 있다. 이것은 선견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가 아니라 맨발로 바위와 가시덤불을 넘어 이 언덕을 뛰어 올랐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준다. 오늘날은 순례객들이 맨발로 천천히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참회와 보속의 의미로나 또는 어떤 지향에 대한 감사함으로 종종 행해진다. 위에서 말한 주요 발현 장소까지의 약 반정도 되는 지점은 Love Tina라고 부르는데 순례객들의 그룹이 1981년 6월 26일 선견자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발현 지점을 표시하는 큰 나무십자가를 세워 놓았다. 그날 저녁 그들(선견자들) 그룹에게 있었던 발현이 끝난 다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길에서 마리아는 어떠한 힘에 이끌려 그 길을 벗어났었다. 갑자기 뒤에 큰 십자가와 함께 성모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슬픈 모습으로 간청하셨다.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가 규범이 되어야만 한다.” 순례객들은 둘레에 돌들이 높게 쌓아올려진 큰 알루미늄 십자가가 발견되는 주요 발현 장소(영구한 표징이 미구에 세워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돌들은 순례자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그들의 지향(원의)을 말해주고 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많은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순례자들이 놓아둔 성화(거룩한 그림), 가족 사진, 그리고 신문의 스크랩들이 있다. 또 다른 장소인 “블루 크로스” 또한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포드브로드 기슭에서 그리 멀지않은 길에 감추어져 있다. 이 장소는 뚜렷한 푸른 십자가로 표시되어지며 초창기에 공산당의 박해가 있는 동안 선견자들이 그들에게 있을 성모님의 발현을 위해 비밀스럽게 만났던 곳을 나타낸다. 이곳 역시 보속과 회개를 위해 맨발로 오르는 순례객을 쉽게 볼 수 있다.

메우고리에 본당 발표 (Informaion Center) 메우고리에의 핵심 메시지

메우고리에의 메시지는 변화, 즉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는 변화에로의 부름이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악마와 죄의 영향과 힘을 극복하는데 있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래의 다섯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메우고리에의 메시지”이다. 성모님께서 이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각 개인을 당신 아들 예수께로 돌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이다.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메우고리에의 선견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주신 공적인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이끄심으로써 행하신다. 결심의 때는 지금이다 !! 성모님의 부르심은 급하다 !!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해야만 한다.

1. 기도

기도는 성모님 계획의 중심이며 메우고리에 메시지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다. “오늘도 나는 너희를 기도로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은 기도중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1987년 4월 25일-.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 신뢰, 포기(내어 맡김), 그리고 전심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 기도는 죄의 역사를 치유한다. 기도 없이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다.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너희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체험할 수 없단다.” -1987년 2월 25일 -

성모님께서 권고하신 기도

- 처음에는 오래된 기도의 전통을 따라 성모님께서는 매일 사도신경, 7번의 주모경을 바칠것을 요청하셨다.
- 이 후에 묵주기도가 집중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혹은 다함께 온전한 묵주기도(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모두)를 바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만 한다. 성모님께서는 “기

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1989년 4월 25일- 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탄의 힘을 쳐 부술 수 있으며, 평화를 얻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기에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그래서 나는 평화의 길과 너희 영혼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탄은 충분히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의 영향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를 봉헌하라고 요청한다. 너희의 삶으로 증거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너희 생활을 희생하여라 그러므로 아이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희가 기도한다면 사탄은 아주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라. 그리고 사탄에게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묵주가 항상 너희 손에 있게 하여라.” -1989년 2월 25일-. 사탄의 힘은 기도에 의해 파괴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기도한다면 그의 미래에 관해 두려워 할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가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것을 못 보는 장님이 되며 그릇된 것에서 옳은 것을 말할 수 없고(찾을 수 없고), 우리의 중심과 균형을 잃는다.

2. 단식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많은 단식의 예(본보기)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단식하셨다. 전통에 의하면 단식은 큰 유혹의 때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특별히 권고 되어졌다. 확실히 마귀는 “기도와 단식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쫓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코 9장 29절>. 단식은 영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핵심적인 것이다. 단식을 통하여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의 말을 더욱 잘 들을 수 있으며 더욱 명확히 지각할 수 있다. 단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자유를 획득한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단식을 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일단 한번 깨닫는다면 그런 다음에는 많은 공포와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단식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열려질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할 것을 권고하셨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하여라” - 1984년 8월 14일 - 성모님께서는 이 어려운 메시지를 “확고한 의지로서” 받아들이고 “단식으로 참고 견디어 내라”고 요청하셨다. -1982년 6월 25일- “가장 좋은 단식은 빵과 물로 하는 것이다. 단식과 기도를 통하여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자연의 법칙을 바꿀수도 있다. 자신의 행위들로(자선으로) 단식을 대신할 수 없다.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단식해야만 한다.” -1982년 7월 21일- 우리는 단식의 힘을 깨달아야만 한다. 단식은 하나님께 희생을 바침을 의미하며, 단지 우리의 기도 뿐만 아니라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지향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단식해야만 하며, 사탄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우리 몸을 제공하는 군인이 되기를 원하여야 한다.

3. 매일 성서 읽기

보통은 성모님께서는 선견자들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오신다. 한가지 경우에, 즉 성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성모님께서는 울고 계셨다. 성모님께서는 “너희는 성서를 잊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성서는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른 책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서의 모든 교회 법적인 책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그것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Dogmatic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책도 이 책(성서)에 비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성서를 유용하지 않는 다른 인간적인 책들과 분리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성인들이나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들조차도 성서에 비유(비교)되어 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마련되어진 보이는 장소에 성서를 두기를 요청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매일 가정에서 성서를 읽으며, 너희가 성서를 읽고 기도하는데 용기를 얻기위하여 항상 보이는 장소에 성서를 두라고 너희를 부른다.” -1984년 10월 18일-. 성모님께서 “너희는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는 참으로 드물다. 성모님께서는 “열망한다.” “부른다.” 등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한가지 경우에 성모님께서는 “해야만 한다.”를 의미하는 매우 강한 크로아티아 동사를 쓰셨다. “모든 가정은 가정기도를 드려야만 하고 성서를 읽어야만 한다.” -1985년 2월 14일-

4. 고해성사

성모님께서는 매달 고해성사를 보기를 요청하신다. 발현의 아주 처음부터 성모님께서는 고해성사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라. 그렇게 하기 위해 믿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1981년 1월 26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확고히 믿고, 정기적으로 고백성사를 보며, 마찬가지로 영성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구원이다.” -1982년 2월 10일-.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사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도 누구나 회개하고 그가 저질렀던 죄를 뉘우치며 성체를 영하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1982년 7월 24일-. 서방교회 (Western Church : 미국)는 고해성사와 그의 중요성을 무시해 왔다. 이에 대해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매달 보는 고해성사는 서방교회 (Western Church)를 치유시킬 수 있을것이다. 이 메시지를 서방에 전달해야 한다.” -1982년 8월 6일-. 메주고리에 오는 순례자들은 항상 고해성사를 보기위해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고해성사를 주시는 수많은 신부님들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는다. 많은 신부님들이 메주고리에서 고해성사를 주시는 동안 대단한 체험을 하신다. 특정한 축일에 대해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축일에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는 대단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1984년 8월-. 고해성사는 죄짓는 것을 쉽게 만드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견자 비스카는 순례자들의 모든 그룹에게 말한다. “고해성사는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생활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해성사는 변화에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모님께서 이와같은 견해를 Jelena(예레나)에게 설명하셨다. “이후에도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습관으로써 고해성사를 보러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안된다. 고백성사는 너희 믿음을 촉진시켜야만 한다. 고해성사는 너희를 격려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이다. 만일 고해성사가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진실로 너희는 변화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983년 11월 7일-

5. 성체성사

성모님께서서는 주일 미사와 가능하면 매일 미사를 권고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영성체와 미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울고 계셨다고 선견자들이 말하였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써 성체성사를 하지 않는구나, 만일 너희가 받는 것이(성체를 영하는 것이) 은총과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영성체를 위하여 매일 최소한 한시간이라도 너희 스스로를 준비할 것이다.” -1985년-. 메주고리에에서의 저녁 미사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오셔서 당신 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미사는 매일의 발현보다 더욱 중요하다. 선견자 마리아는 만일 그녀가 영성체와 발현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영성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녁미사는 영구히 지속되어야만 한다.” -1981년 10월 6일-.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미사 전에 항상 성령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거룩한 미사를 “기도의 가장 높은 형태와”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신다. -선견자 마리아에 의한 메시지-. 선견자 비스카 또한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미사를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보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대한 존경으로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순수해야만 하며, 미사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비스카는 말한다. 사람들이 성체를 향하여 충분한 존경을 갖지 않으므로 성모님께서서는 울고 계신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미사 신비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는 거룩한 미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사 중에 너희에게 당신 은총을 베푸신다.” -1986년 4월 3일-. “거룩한 미사를 너희 삶이 되게 하라” -1988년 4월 25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이 예수님 재림의 희망과 함께 우리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사 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함에 틀림없는 우리 구원의 모든 신비를 받는다. 거룩한 미사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 신비의 완전한 체험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너희들은 미사의 은총을 결코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너희는 완전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 스스로를 준비해야만 한다.” -1983년-.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미사 동안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며, 이 순간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 이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과 성령님께 맡겨 드림은 메시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거룩함의 길이기 때문이다. 성체성사 안에서 성령께로 열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이다. 이 길로써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성모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에서 성모님의 증인이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을 성령께로 열어라. 특별히 이 시기에 성령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려라.” -1985년 5월 23일-.

가슴에 꽃뿔는 사랑

이옥원 발바라

웨인 와이블의 '메주고리에' 번역자

1985년 개신교 신자 웨인 와이블씨가 극적으로 성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에 관한 책을 펴내게 되었고 그의 저서 '메주고리에 메시지'와 '선교사명'을 통해 저는 메주고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TV 뉴스와 신문을 통하여 보스니아 전쟁에 대하여 잘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 보스니아의 한 조그마한 산간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95년 9월 잭슨 테네시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새벽 미사 후 보좌신부님으로부터 웨인 와이블씨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부님은 "내가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며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게된 그 책 2권은 저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단어 찾기 귀찮아 읽을 엄두도 못 내던 터에 그 두꺼운 책을 밤을 꼬박 새우며 사전도 찾지않고 읽었던 것도 기적이었고, 읽고 나서 책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붙은 불꽃이 뜨거워 온 방안을 뱅뱅 돌기만 했던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파라클리트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번역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시바빠 읽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신 아드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미 14년을 매일같이 오셔서 메주고리에 마을 젊은이들을 통해 전세계에 호소하고 계시는 이 기막힌 일을

어린 시절 조그만 상분속에 예쁜 성모님을 무조건 사랑했던 때를 그저 향수처럼 지니고 바쁜 일상속에 묵주기도 조차도 어찌다 드릴 정도로 멀어졌던 성모님은 그렇게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책을 번역하게 되자 직접 메주고리를 가보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가고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1996년 4월 첫 번째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에는 돌맹이도, 공기도, 한 포기 of 들꽃 조차도 성모님의 은총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자의 말처럼,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도는 벼랑길을 손에 땀을 쥐며 들고 돌아 마을에 도착하자 과연 무언가 신비스러운 기운이 온 몸을 휩싸는 듯 했습니다.

성 제임스 성당에서 가슴 벅차오르던 크로아티아어 미사, 처음으로 미사의 아름다움에 되취해 버렸습니다. 9일 동안 손에 줄곧 들고 다니며 드리던 묵주기도, 고백 성사의 신비스러운 체험,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오르내리던 발현 산, 십자가 산, 무한한 체험, 체험들, 말이나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 내면을 담그고 깊이 깊이 느끼고 터득하고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일치를 십자가 산의 십자가 길을 걸으며 앞을 가리는 눈물 속에 가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메주고리를 그리는 향수병에 걸려 2번을 더 다녀와야 했습니다. 지금도 메주고리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 그리움이 차 오릅니다.

요조 신부님은 메주고리에 '기도의 학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히 요조 신부님 말씀에 더 보태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주고리에에 가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은총과 사랑의 샘물을 떠다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한 모금씩 나누어 함께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이 컷전에 울리는 듯 합니다.

"나는 너희 가슴이 사랑으로 눈뜨라고 너희 모두에게 호소한다. 대자연 속에서 어떻게 자연이 눈 뜨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에 너희 마음을 열도록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가정에서 사랑으로 눈뜨기를 바란다. 그래서 불안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이 다스리게 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또 내가 나의 기도로 너희를 도와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끝으로 '메주고리에'의 발간을 축하하며 성모님을 기쁘게 헤드리고자 애쓰시는 발행인 김한기 신부님과 편집인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예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예와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분들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한 메주고리예를 안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락주시면 본지에 연락처를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수 (아오스딩 마리아) Queen of Peace-Chicago Marian Center
675 Pearson #708 Des Plaines, Il 60016 / Tel.(847)803-3292 / Fax.(847)803-3633

남홍익 (그레고리오)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 Tel.(631)367-6191, (631)367-6221 / 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예’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 주문량**
- (1)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합계 \$110 ()
 - (2)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합계 \$270 ()
 - (3) 500부 이상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